

4. 폐로 전이된 신우 이행상피암종의 세침흡인생검 1 예 Metastatic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the Lung from the Renal Pelvis, Diagnosed by Fine Needle Aspiration -A Case Report-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성남, 김미경, 박용욱, 유재형, 송계용

신우의 이행상피암종은 드문 질환으로 신종양의 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종양의 조직학적 등급과 임상적 병기는 비교적 일치되며 예후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종양은 후복막 림프절로의 전이가 흔하고 골, 간 및 폐로의 원격전이가 잘되는 질환이다.

환자는 58 세 남자로 3 개월전 부터 계속되는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X-선 및 전신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의 좌측하엽에 3 cm 크기의 비교적 경계가 잘 지워지는 단일성 공동병변이 관찰되어 항결핵제로 치료하였으나 증상 및 병변의 호전이 없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도말표본은 출혈 및 괴사성 배경에 공포 형성 및 각화 현상이 없는 비교적 균일한 모양의 종양 세포들이 판상 혹은 유두상으로 배열되어 있어 원발성 폐암의 어느 암종과도 일치되지 않는 소견을 보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10 년전 신우의 이행상피암종으로 실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전이성 암종이란 진단하에 좌측 폐하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단면에서 내면에 유두상 증식을 보이는 공동성 병변과 함께 주변으로의 침윤성 양상을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기관지와의 연결도 있었다.

저자들은 폐로 전이된 신우의 유두상 이행상피암종 1 예를 경험하고 세침흡인생검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상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5. 거대세포 암종 -5 예 보고- Giant Cell Carcinoma of the Lung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윤철희, 조갑래, 박관규, 장은숙

폐장의 거대세포암종은 매우 희귀하며 전 폐암의 2% 미만이다. 이 종양은 미분화성 대세포암종의 한 형태로 보며 편평상피나 또는 선상상피로의 분화가 전혀 안보이거나 간혹 약간의 선상분화가 보이는 수도 있다.

기관지 술절 세포진과 세침흡인 생검세포진으로 진단되고 또 조직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진단된 거대세포 암종 5 예를 보고한다.

환자는 39 세, 52 세, 54 세, 59 세, 85 세, 그리고 남자 4 명, 여자 1 명으로서 그 간단한 병력은 다음과 같다.